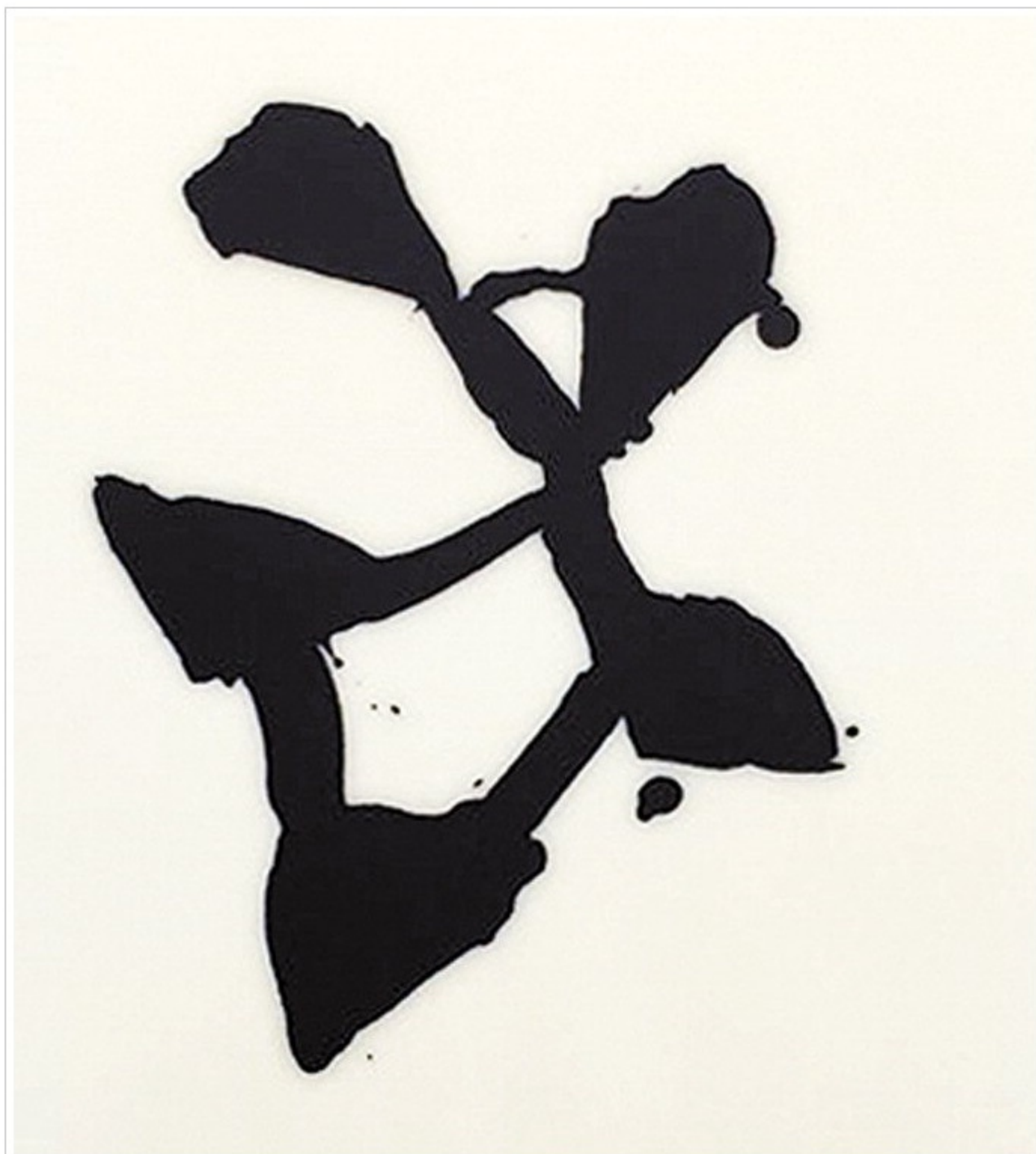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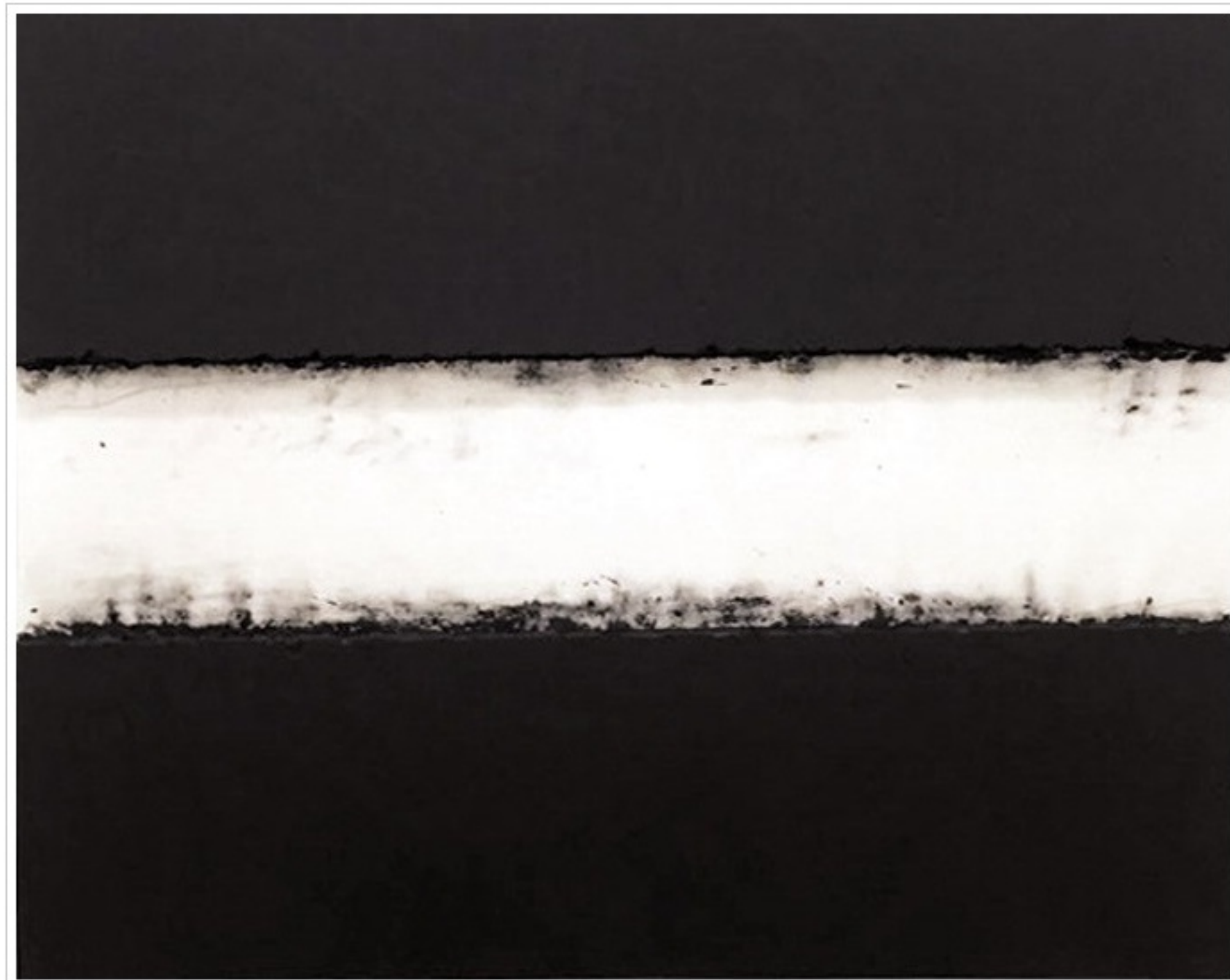
문화	<b>세상을 빨아들이는 캔버스의 '블랙 홀'...우손갤러리 8월6일까지 이배 작가展</b>
공면 전시	인쇄 <span style="font-size: small;">-</span> <span style="font-size: small;">+</span>
<span style="font-size: small;">f</span> <span style="font-size: small;">t</span> <span style="font-size: small;">v</span> <span style="font-size: small;">p</span> <span style="font-size: small;">n</span> <span style="font-size: small;">g+</span> 기사내보내기	

김수영기자 2016-06-14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 모호한 기호 통해 관람객 참여 유발



이배 작'Untitled, 2008'



'Landscape'

청도 출신의 이배 작가는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1989년 예술의 나라 프랑스로 건너갔다. 이 시기는 이 작가 스스로에게 작가 인생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였으며, 유럽에서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중국에서는 톈안문사태가 일어나는 등 세계 곳곳에서 변환의 급물살이 일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파리를 거점으로 작업활동을 시작한 그는 이 시기부터 검정이라는 색에 천착했다. 그 이유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통해 그의 내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우손갤러리 이은미 큐레이터는 "이배 작가가 캔버스를 검정으로 온통 뒤덮었던 배경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통해 이배 작가가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많은 것을 향한 인식의 변화가 벽이 무너지듯 검은색의 화면 속으로 사라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검정으로 덮어 모든 것이 사라져 없어진 이 작가 작품의 '무(無)'에 대한 인식은 제거와 정화를 통해 이루어진 부재로서의 '무'가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이 검정 사각형 안으로 빨려들어가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면에서 이 작가의 작품은 한국추상미술과는 차별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추상미술의 단색적 회화양식이 형태와 색이라는 즐거움을 절제하고 정신의 정화를 추구한 반면, 이 작가 작품의 검정색 모노크롬은 모든 현실적 요소를 극도로 압축시켜 축적된 포화 상태라는 점이다. 이 작가는 검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숯이라는 재료를 가져왔다. 숯은 나무의 재질이 단단하지 않으면 전소되어 버리고, 밀도있고 단단한 목질만이 남아 만들어진 연소물이다. 나무라는 형태가 사라지는 소멸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로 재탄생된 물질인 것이다.

2000년에 들어서 이 작가는 검정이 내포하는 가능성을 공간을 넘어서 시간으로 확장시켜 나가려는 시도를 했다. 숯의 검정을 한층 더 밀도 높은 색감으로 살려내기 위해 왁스와 같은 매디움도 혼합했다. 그리고 이 재료로 모호한 기호적 형태를 캔버스 위에 펼쳐보였다.

이 큐레이터는 "이런 모호한 기호는 관념을 이미지로 바꾸어 놓은 것이며, 이 상징적 이미지가 내포하는 의미는 막연하고 가변적인 것으로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힘들다. 이 작가는 자연이나 사물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지 않는 모호한 기호를 통해 보는 사람의 참여를 유발시키고 각자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작품이 완성에 이르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 작가의 작품은 8월6일까지 우손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053)427-7736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